



# 온라인 책 구매에 밀리는 지역서점과 상생을

제주도서관 희망도서 서비스  
시내 서점에서 구입해 읽도록  
제주도 발급 꿈바당 학생카드  
24개 서점서 이용가능하도록  
지역서점 조례 속 인증제 검토

제주에서 지역서점과 상생하는 방안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서관이 올해 처음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고 제주도 역시 처음으로 지역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생카드 발급에 나선다.

제주엔 크고작은 서점을 합쳐 200곳이 넘는 책방(제주작한여행 집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도서관 숫자가 인구 대비 전국 상위를 달리고 서점들이 늘고 있는 영향인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얼마전 내놓은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제주지역 연간 독서율, 독서량 등 주요 독서지표 5대 항목이 전국 평균을 앞



제주에서 열렸던 한국지역도서관.

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서점의 오늘은 그리 밝지 않다. 제주도서점조합에 가입한 제주시 서점 중에서 제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탐라도서가 근래 폐업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 책을 읽고 구입하는 독서 인구는 제자리 걸

음인 형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책 구매가 한층 증가하고 있는 점도 서점으로 향하는 발길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교육청 소속 제주도서관은 이르면 4월부터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벌인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제주 시내 서점에서 구매 읽는 서비스다.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서점에서 일반 도서에 한정해 책을 구매해 본 뒤 대출 기간 안에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금은 희망도서 서비스를 신청해 책이 도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읽고 싶은 책을 바로 서점에서 구입해 읽으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서점 이용 습관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주도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생카드’를 발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제주꿈바당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

록된 온라인 강의, 진로진학 컨설팅, 진로체험만이 아니라 도내 서점 24곳에서 쓸 수 있다. 서점으로선 청소년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지역서점 인증제 가동 여부도 관심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공공기관의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고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적극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타 업종 업체가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관 품시장에 참여하는 ‘유령서점’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주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공공도서관 등에서 책을 구매할 때 ‘서점 매장 확인서’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문제부 방침에 따라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구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2018년에는 제주도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학교 예술강사에 강사비 앞당겨 준다

개학 연기에 무소득 늘자  
이달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도내 국악·무용 등 115명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초·중·고 개학 연기로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제주지역 예술강사 운

영기관인 서귀포문화원과 국악협회 제주도지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방침에 따라 출강의 지연에 의해 발생하지 못할 개별 예술강사의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한 긴급 구제 방안으로 강사비 선지급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예술강사는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예술강사를 지

원하는 사업이다. 예술강사들은 기본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과 연계해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문화예술교육을 벌인다.

제주에서는 115명의 학교 예술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국악 47명, 연극 18명, 영화 4명, 무용 23명, 만화·에니메이션 7명, 공예 10명, 사진 2명, 디자인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비는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모두 합쳐 14억원 규모다.

이번 강사비 선지급 제도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개학 일정이 미뤄지면서 무소득 기간 장기화로 곤란을 겪는 예술강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2020년 활동 강사비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치수 1/10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지급 신청서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이루어진다. 선지급액 지원은 4월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악을 뺀 7개 분야 예술강사를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문화원은 “공직 하루만인 17일 학교 예술강사 15명이 선지급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 원로 언론인 구술 ‘제주 언론인의 기억’

제주연구원 집중 인터뷰  
50~60년대 언론활동 첫발  
5명 통해 제주사회상 조명

제주 원로 언론인들의 육성을 통해 해방 이후 제주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에서 펴낸 ‘제주 언

론인의 기억’이다.

이 책에는 80세 이상 제주 도내 원로 언론인 중에서 5명이 구술에 참여했다. 제민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초기 제주도기자협회장을 지낸 김지훈(88) 전 제민일보 사장, 1958년 한국일보 제주주재 기자 등 초창기 전국지 제주주재 기자로 활동한 신상범(86) 전 중앙일보 사회부장, 1964년 제주신문 기자로 입사해 52년에 걸

친 언론계 경험을 지닌 김경호(84)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 4·5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끝으로 50여 년간의 사회활동을 마감한 이문교(83) 전 제주MBC 보도국장, 1967년 제주신문 기자로 언론에 발을 디뎠고 농촌계몽활동이나 제주도 관광협회장(29·30대)을 맡는 등 열정을 보여온 홍명표(81) 전 제민일보 사장이다.

최근까지 언론 현장에 몸담아온 이들은 당시 취재현장, 사회상, 사건사고의 뒷이야기 등을 가감 없이 풀어냈

**축**  
CONGRATULATIONS

|                                                          |                                                          |                                                           |                                                         |
|----------------------------------------------------------|----------------------------------------------------------|-----------------------------------------------------------|---------------------------------------------------------|
| <p><b>승진</b><br/>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br/>[치안감]</p> <p>김도준</p>     | <p><b>승진</b><br/>제주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장<br/>[부이사관]</p> <p>김명옥</p> | <p><b>승진</b><br/>제주특별자치도비료문화유산과장<br/>[서기관]</p> <p>고창덕</p> | <p><b>승진</b><br/>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팀장<br/>[사무관]</p> <p>한미숙</p> |
| <p><b>취임</b><br/>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br/>서귀포시지부장</p> <p>현학렬</p> | <p><b>취임</b><br/>세화고등학교<br/>총동창회장</p> <p>오순금</p>         |                                                           |                                                         |

원우님의 승진 및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과정) 15기 원우회**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01**

도내 언론사 최초 ‘마코’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03**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02**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04**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